"광주비엔날레, 5·18 아픔 예술로 승화"

전남대서 세계 미술 전문가·대학원생들 미술 大 토론회

T.J.데모스

이남희

클레어 탄콘스

렌지트 호스코테

후 한루

김현진

"세계의 비엔날레들이 전시가 열리는 공간(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T.J.데모스·영국 런던대학교 강사)

"역사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끝없이 재해석되는 과정이다. 큐레이터들이 역사를 이미 정의가 확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작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광주비엔날레 오쿠이 엔위저 예술 총감독)

지난 27일 오후 3시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시청각실에서는 국내외 큐레이터와 비평가들의 격없는 토론이 벌어졌다. 2008 광주비엔날레 '글로벌 인스티튜트(Global Institute)' 국제심포지엄(26~27일) 이틀째인 이날 참가자들은 의자에 걸터앉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세계 비엔날레 사상 처음 시도되는 행사로, 세계의 미술 전문가와 대학원생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교육 실험의 장이다. 7회째를 맞은 광주비엔날레가 단순한 미술 전시에서 벗어나 세계 미술 담론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한 야심작이다.

국제심포지엄은 26일부터 이틀간 오쿠이 엔위저 감독과 이남희(미국·UCLA 교수), 클레어 탄콘스(미국·큐레이터), 후한루(중국·미술평론가) 등 패널 15명이 발제를 한 뒤 참

27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열린 '글로벌 인스티튜트(Global Institute)'에서 패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비엔날레 재단 제공〉

07 연례보고 08 '글로벌 인스티튜트' 국제심포지엄 정치·역사와 비엔날레 관계 조명

가자들과 질의 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관심을 끈 화두는 '정치, 역사와 비엔날레의 관계'였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광주에서 비엔날레가 개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제는 역사를 재해석하는 미술과 비엔날레의 역할로 집중됐다.

이남희 교수는 '광주 5·18 항쟁 및 민주정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차별당하는 민중이 들고일어나 피를 흘린 혁명이었다"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삶을 희생하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T.J.데모스는 "광주비엔날레가 역사적 기억(5·18)을 되살리려면 역사적 관점에서의 신비주의를 먼저 해체하고 상업주의도 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엔날레는 역사적인 의미를 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소한 작품도 전시할 수 있는 환경과 관람객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용우 상임부이사장도 "5·18의 아픔을 예술적, 문화적 대안으로 승화시키려는 지적 합의가 광주비엔날레를 만든 계기였다"면서 "5월의 정신이 아름답게 표현되면서 영원한 가치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렌지트 호스코테(인도·큐레이터)는 "비엔날레는 세계화에 대한 비평적 고찰을 담고, 세계 곳곳의 문화가 생산되는 현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 광주비엔날레 공동큐레이터였던 후 한루는 '산업화 도시에서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과 공공 예술'에 대해 소개했다.

또 다네 오헤다(미국·스쿨 오브 아트 교수)는 '전시 디자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디스플레이 전략들'을 발제했고, 윤수종(전남대 사회학과)교수는 '프랑스 68혁명과 자율운동'을 주제로 미술의 정치적 역할을 이야기했다.

한편 재단은 이번 글로벌인스티튜트의 교육 내용과 국제심포지엄 토론 결과를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가을, 연극무대로의 초대

올초 공모 과정을 거쳐 2008년 광주시 무대공연지원작품으로 선정된 연극 두편이 관객들을 만난다.

극단 '청춘'은 분단의 아픔을 다양한 세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묵직한 작품 '구름되어 떠나고'를 통해 분단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전한다. 10월 2일(오후 7시30분)과 3일(오후 4시·7시30분) 5·18기념문화센터.

작품 속 주인공은 80세 노인 박영준. 젊은 시절 월남한 박 노인은 매년 휴전선 근처의 절 봉정사에

극단 청춘의 '구름되어 떠나고'.

'구름되어 떠나고' 분단의 아픔과 통일 염원 '혼의 노래' 소리꾼이 된 세도가 종손의 운명

서 아버지 제사를 모신다.

어느날 봉정사에서 열리는 마당극 공연을 보게 된 박 노인은 자신이 이야기속 주인공임을 직감하고, 절친한 친구였던 김석준 등 작품 속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놀이 방식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전통소리와 구음, 탈춤 등이 어우러져 관객들의 감정 이입을 돕는다.

원광연씨가 희곡과 연출을 맡았으며 오설균씨 등 청춘 단원들과 지역 놀이패, 국악인 등 타 장르 예술인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티켓 가격 3만~1만5천원. 극단 '청춘'의 인터넷 카페(cafe.daum.net/cctheater)에서 예약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62-430-5257.

푸른연극마을은 전통문화인 '판소리'를 소재로 한 '혼의 노래'를 2일(오후 7시30분)과 3일(오후 5시) 두차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대표 오성환씨가 대본과 연출을 맡은 이번 작품은 세도가 집안의 종손으로 태어난 주인공 남연이 '소리'의 길을 택하면서 맞게 되는 신산한 삶을 연극적 방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광대짓'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불호령으로 집에서 쫓겨난 남연은 기녀 채선과 인연을 맺고 당대의 명창을 찾아 소리를 배우며 득음의 경지에 이른다. 하지만 신문물이 들어오고, 6·25를 거치며 소리꾼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는데….

국악인 양신승씨가 주인공 남연역을 맡았으며 이당금·김명대·정일행·김현란·이슬비·이민행·김창규·박영진·마미숙씨 등이 출연한다. 신경환씨가 음악감독을 맡아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티켓 가격 1만 5천원, 1만원. 문의 062-511-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승원이 들려주는 '글 잘쓰는 법'

'글쓰기 비법 108가지'

올해로 등단 40년을 맞은 작가 한승원(69) 씨는 '소설가'라는 호칭보다 '글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작가다.

소설뿐 아니라 시, 동화, 수필 등 장르를 넘나들며 '글쓰기에 미쳐' 살아온 그야말로 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 시대 진정한 글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승원의 글쓰기 비법 108가지'(푸르메 펴냄·사진)는 작가가 40년간의 글쓰기 인생을 통해 건져 올린 '글쓰기 비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작가는 글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에서 시작해 글쓰기

에 임하는 바른 마음가짐, 글감 찾는 법, 글쓰기의 기술 등 다소 관념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모두 담은 주옥같은 조언들을 들려준다.

작가는 서문에서 "진실하면서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글을 쓰려고 마음먹은 그대의 몸속에는 그러한 글이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 있었다"며 "나는 그것을 꺼내드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344쪽. 1만2천800원.

/연합뉴스

오연호 '오마이…' 대표 '미디어 환경 대처' 특강

시민저널리즘을 표방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의 대표인 오연호〈사진〉씨가 30일 오후 7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특강을 갖는다.

이번 특강에서 오씨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밖에 미디어에 담아야 할 내용, 미디어가 품어내는 다양한 역할과 효과 등 오씨가 미디어에 대해 평소 생각해왔던 이야기도 들려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박하나 가야금 연주회 ▶10월 2일 빛고을 국악전수관

광주빛고을 국악전수관이 주최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이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가야금 연주자 박하나씨를 초청, 203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박씨는 이번 연주에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12현 가야금 곡 '놀이터', 25현 가야금곡 '뱃노래'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영남대 출신으로 전남대 국악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박 씨는 제16회 대구국악제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일반부 기악부문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현재 광주가야금연주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제 26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단소, 장고, 고법, 해금 등 8개 강좌며 초·중급반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강의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23일까지며 수강료는 5만원(단소는 4만원)이다. 마감은 오는 30일까지며 분야별로 20명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062-350-4553. /김미은기자 mekim@